

코스피	5969.64 (+123.55)	코스닥	1165.00 (+13.01)
금리 (연이자율)	3.158 (+0.004)	환율 (원/달러)	1445.90 (+5.90)

K-방산 '빅4' 수주잔고 120조 시장 다변화 과제 04



회생의 마지막 동아줄 유암코, 해결사 나설까

흡플러스 회생절차 1년

흡플러스가 다음 달 4일 법정관리 시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제3자 관리인으로 거론되는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가 해결사로 등판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자금 조달이 지지부진해 법원이 청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최후통첩을 보내자, 노동조합과 정치권은 일제히 유암코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흡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흡플러스 회생절차 연장과 유암코의 제3자 관리인 선임 촉구했다.

법원, 청산 가능성 등 최후통첩 민간 구조조정 기구 '유암코'에 노조·정치권, 관리인 선임 촉구

인수용 마트노조 흡플러스지부장은 "MBK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유암코와 같은 공격 성격의 전문 구조조정 기구가 관리에 참여해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책임 있는 회생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민병덕, 권향엽, 이강일 등 국회의원들 역시 MBK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11일 대주주 MBK와 채권단,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회생절차 지속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리인이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에 대해 현실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MBK 측은 기존에 약속한 1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참여하고 필요시 관리인 교체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생계획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난이 심화하며 흡플러스 현장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 1월부터 임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이 체불되거나 분할 지급되고 있으며, 거래처 납품물은 급감해 매대가 비어가고 있다. 점포 수 역시 2024년 126곳에서 이달 기준 111곳으로 줄었다. 이달에만 부산감만, 울산남구, 화성동탄점 등이 폐점 절차를 밟으며, 사측은 2027년까지 전체 점포를 10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다. 과거 STX 일부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시장의 신뢰를 잃은 흡플러스의 자금 조달 물꼬를 터줄 적임자로 꼽힌다.

업계는 유암코가 회생을 주도하더라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자본의 단기 이익을 위한 점포 매각이나 악랄적 청산 방식이 아니라, 임금체불 최우선 해결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태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과 인수용 마트노조 흡플러스지부장은 지난 3일 이래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도 변수로 작용한다. 대형마트의 배송 규제가 풀리면 흡플러스가 보유한 전국 290개 PP센터(피킹&패킹센터)가 핵심 물류 거점으로 작동해 기업 인수 매력도와 시장 경쟁력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흡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법원은 각계에서 취합된 의견을 종합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내달 4일 무렵 회생 절차 지속 또는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흡플러스 마트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유암코를 3자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장 정보가 나타나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5846.09)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장중 나란히 20만원, 10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7000원 오른 20만원에, SK하이닉스는 5만4000원 오른 10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1

100만닉스·20만전자 찍고 '육천피 눈앞'

코스피 2.11% 오른 5969.64 삼성 3.63%, SK 5.68% 상승

20만원, 100만5000원.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만전자' (주가 20만원)와 '100만닉스' (주가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코스피 또한 미국에서 날아든 글로벌 관세 10% 부과 소식과 '인공지능(AI) 발 금융위기' 공포를 떨쳐내고 '육천피(코스피 6000)'에 바짝 다가섰다. <관련기사 3·13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1% 오른 5969.64에 마감했다. 6000까지는 불과 30.36포인트를 남겨뒀다.

반도체 '투톱'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20만원(3.63% 상승)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5.68% 뛴 100만5000원에 마감했다.

AI발 금융위기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발표 소식도 국내 반도체 투자 열기와 코스피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이는 시장

평가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시트리니 리서치'는 22일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의 산업·금융 체계와 기술 도입 과정이 '폭폭한 지능(인간)은 귀하다'는 전제 아래 운영됐는데, 이런 희귀함이 없어지고 지능 프리미엄(웃돈)이 청산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장 재조정(repricing)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허정운·신하은 기자 zekova@

주총 앞둔 재계, 집중투표제 검토 등 분주

삼성, 김용관 사내이사 선임 등 안전 SK, 배터리·반도체 투자 속도조절 현대차, 자율주행 등 사업목적 추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할 전략 구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주 설득과 기술 경쟁, 정책 변수까지 한꺼번에 겪던 가운데 기업들은 주총을 통해 경영 전략에 대한 신뢰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구성,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안건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의 김용관 경영전략총괄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김 총괄은 메모리사업부 지원팀장, DS 부문 기획팀장에 이어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 담당임원, 사업지원TF 담당임원 등을 거쳐 2024년부터 DS 부문에서 재직 중이다. 이재용 회장 사내이사 복귀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SK그룹은 배터리·반도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 일부 사업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계열사별 투자 계획과 재무 전략이 주총 메시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글로벌 메모리 경쟁사들을 제치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양산 출하를 최근 본격적으로 개시한 만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자동차 대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제조를 넘어 렌터카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현대차그룹이 미래 투자 전략의 전동화와 로봇에 대해 어떤 사업 방향을 내놓을 지도 중요 포인트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고객사 비중 확대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및 로보틱스 분야를 신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다음달 19일 주총에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한화오션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지분 및 권리 등 양수도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컨설팅 및 용역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이 대통령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엄정 대응"...지선 앞두고 지시 /사진 뉴스1
▲진통 끝 43일 만에 중수청 확정...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與,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이틀째...경기지사 후보 5명 '각축전'
▲국힘, '현지누나' 김남국 與 대변인 임명에 "인사 단장이 국정과제인가"

▲국힘 소장파 "'윤어게인'으로 지선 치를 수 있나, 의총서 투표"
▲한동훈, 25일부터 사흘간 대구 투어...재·보궐 선거 출마 관심

비만치료제 시장 양강구도 심화 국내기업, '차세대 기전' 승부수

셀트리온 4중 작용 주사제 등 개발
한미약품 만성·복합질환 연구 확장
동아에스티 혈당 강하 효과 확인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양강 구도가 심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포스트 비만치료제를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주사형 비만치료제 '젠티온(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투여 옵션을 확대했다. 공개 방식(오픈 라벨)의 임상시험인 SURMOUNT-5에서 젠티온을 투여한 성인 비만 환자들은 평균 50파운드(20.2%)의 체중 감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를 개발하며 일라이 릴리와 맞대결하고 있다. 카그리세마는 카그리린 타이드 2.4mg과 세미글루타이드 2.4mg을 고정 용량으로 조합한 복합제다. 두 성분은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포스트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4중 작용 주사제'와 '다중 작용 경구제'를 동시에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4중 작용 주사제 후보물질인 'CT-G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32'는 계열 내 최초 약물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 치료제의 근손실 부작용은 개선함과 동시에 식욕 억제, 체중 감량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임상시험승인계획(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중 작용 경구제는 주사제 대비 상대적으로 투약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환자 치료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기반으로 약물을 설계해 계열 내 최초 약물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한미약품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질량지수 30kg/m² 미만 여성에서 12.20%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해 초



한미약품 본사 전경.

고도비만이 아닌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전망된다.

또 한미약품은 올해 들어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HM15275' 임상 2상에 진입했다. 36주간 장기 투여 시 비만,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을 줄이고 제지방을 개선하는 차별화된 효능을 집중 검증한다.

특히 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개발을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 연구 확장에 중점을 둔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우에도, 비만에 이어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으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도 차세대 비만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대한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에 대한 추가 임상 1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혈당 강하 및 간경직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찬희 “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역할 필요”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등기임원으로서 경영 진두지휘해야”

삼성그룹 준법경영 감독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4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찬희 위원장(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준감위는 기존 준법 경영 강화와 함께 최근 탄생한 과반 노조 등 삼성전자의 새로운 노사 관계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 복귀와 관련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회사 내부에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을 것이고 경영 판단은 훨씬 더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이 회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고, 많은 위원들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다”며 “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 사항이 있어서 결정해서 회사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노조 측에서는 사측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간극이 무엇인지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며 조정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일자리 증가율 0.7%... 역대 최저 수준

데이터처 2025년 3분기 일자리 동향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이 1% 미만인 데 그치는 등 고용시장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건설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7% (13만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역대 최저는 올해 1분기(1만5000개)와 2분기(11만1000개)였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은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작년 1분기에는 1만5000개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수치는 전분기보다 소폭 나아졌으나 구조적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12만7000개 줄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1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2만8000개 감소했는데, 수주 부진 및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보건·사회복지업은 12만9000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4만 개 줄어든 반면, 여성 일자리는 17만9000개 늘었다. 남성은 주로 건설업(-10만7000개)과 제조업(-6000개)의 부진에 영향을 받았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0만4000개)와 전문·과학·기술(1만7000개)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됐다. 여성 신규 채용 비중(28.4%)이 남성(25.3%)보다 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李 “다주택 유지하는 자유... 위험·책임 동반”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 재차 강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손익은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적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집값 오를 것이라 기대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이 같은 하락 폭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적 정상화를 지지한다”

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美, 글로벌 관세 10% 우선 시행

15% 연기... 백악관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된다.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 관

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도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법적 패러다임 전환... ‘상법 개정안’ 첫 적용

» 1면 ‘주총 앞둔 재계...’서 계속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디스플레이는 19일 주총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다. 이는 외부 사업 진출보다는 대규모 제조 시설을 보유한 기업 특성상 사업장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을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다음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주총을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이사회 내 독립기구 구성요건 명확화 ▲이사 총실행의무 도입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 약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등을 안건

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능력, 지배구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 설득과 기술 경쟁, 정책 변수 등 주총이 단순의결 절차를 넘어 경영 전략을 설명하는 무대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추면서 기업 경영에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총이 과거와 다른 점은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다. 지난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이사 총실행의무 확대)’이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사들은 기업 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양성운 기자

월가 흔든 '시공포' 무색... 삼성·하이닉스, 시총 2000조 돌파

“매수보다 매도 어렵다” 격언 재소환
개미들 “언제 팔까” 매도 타이밍 고심
증권가 “이번 사이클, B2B 수요 변수”
1분기 D램 계약가 70~100% 급등 전망

직장인 김광중(가명)씨는 작년 11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10만원, 57만원 안팎에 샀다. 오랜만에 PC를 한 대 장만하려고 부품 값을 보다가 램 가격이 몇 달 전의 거의 두 배가 된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D램 품귀’ 이야기도 이어지자 “반도체가 더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김씨는 현재 90%가 넘는 평가 이익을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상승 폭이 커지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김씨는 “너무 많이 오르니 무섭다”며 “이제 슬슬 팔아야 할 것 같은데, 타이밍을 도무지 못 잡겠다”고 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 전자 주가가 ‘20만전자’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종가 100만5000원)을 돌파했다. 두 기업의 합계 시가총액은 2009조원(우선주 포함)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발효를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 주가가 강세를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쯤 수익을 거둬들이면 되는지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선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는 격언이 다시 회자된다. 주가가 오를수록 언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할지가 고민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업황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단순히 오름폭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사이클이 어떤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투톱 시가총액 2000조원 시대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66.81%, SK하이닉스 주가는 54.38% 올랐다. 작년 말 기준 두 회사 시가총액은 합계 1256조원대였지만, 이날 2000조원대로 불어났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빙산이 다가온다’는 보고서를 내며 반도체 비판론의 선봉에 섰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8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는 삼성전자 245조원, SK하이닉스 179조원을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삼성전자 158조원, 138조원)보다 각각 55%, 29.7% 높다. 모건스탠리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은 이미 내년까지 완판됐고 올 1분기 D램 계약 가격은 70~100% 급등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2027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29만원, 156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영국 바클레이즈도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여전히 낮다”며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예탁증서(GDR)’의 목표 주가를 3600달러로 높였다. 국내 본주 환산시 21만1600원 정도다.

두 종목을 투자 바구니에 담아놓은 투자자 대부분은 현재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개인들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4조199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 주식은 3170억원어치 팔았다.

회사원 박모(48)씨는 “평균 매수단가가 7만5000원인데, 10만전자까지는 팔고 싶은 유혹을 잘 버렸는데 막상 ‘20만전자’가 되니 심각하게 고민된다”며 “삼전을 가진 주변 동료 대부분이 (언제 팔지) 눈치 게임 중”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궁금하다, 매도 타이밍
반도체 업황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진짜 수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2년 주기로 등장했던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모바일과 PC, 가전 등 소비자 중심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등 AI 관련 투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2B(기업 간 거래) 수요라는 점에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범용D램과 낸드 평균판매가격(ASP)이 전년 대비 각각 150%, 9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 역시 “이익 전망치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수출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35억달러였다. 반도체 수출이 151억15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4.1% 급증한 영향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보다 16.4%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반도체 업황 사이클보다 주가가 늘 앞서갔다는 게 문제다. 2000년대 이후 몇 번의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기 약 6~9개월 전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후 먼저 꺾인 적이 많았다.

AI발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AI 공포 투매’가 미국 월가를 뒤흔들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전날 구독플랫폼 서브스택에 올린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혁신으로 화이트칼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서 2028년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2021년 ‘과잉 발주’된 반도체가 2023년 1분기 ‘과잉 재고’가 돼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급락했던 것처럼, 달콤한 파티가 훗날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트럼프 관세 재부과에 시장 불안... 금 오르고 코인 하락

23일 국제 금 선물 온스당 5225.60佛
‘2차 관세’·美-이란 긴장에 금 수요 ↑
금·코인 ‘탈동조화’... 디지털 금 옛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재부과하며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한 영향이다. 아울러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불확실성에 금값이 오른 반면, 한 때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다.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 확산... ‘안전자산’ 수요 ↑

24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거래된 4월 인도물 금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5225.60달러다.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144.70달러(2.85%) 올랐다. 이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국제 금값은 지난 1월 30일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이후 700달러 이상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며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한 것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부과와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중인 골드바. /뉴시스

‘대체 관세’를 통해 관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섰다.

트럼프는 “터무니 없는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결정 당시의 합의를 뒤집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두고 ‘합의 위반’이라며 무역협정 이행을 미루고 있는 만큼, 이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라크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집결하고,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탄도미사일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군 시설 등 제한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금’ 옛말... 비트코인 약세
금 가격은 급등한 반면 과거 ‘디지털 금’

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에 1BTC당 6만3864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30일 전과 비교해 28.4% 하락한 가격으로, 작년 10월 기록한 최고가인 12만6200달러와 비교해 49.2%나 급락했다. 금값이 작년 10월 초와 비교해 30% 넘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트코인은 과거 ‘복제 불가’와 ‘희소성’을 이유로 ‘디지털 금’으로 불렸다. 가격도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거시경제를 따라 움직였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으며, 기업들도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헤지(자산가치 보전)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미 연방정부의 ‘첫다운(정부 기능 일시정지)’ 이후 비트코

인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힘입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섰다 운 이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시되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중단 선언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매입도 없을 것이다. 오직 법적 사건으로 입수한 코인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작년 3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번복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당분간 ‘디지털 금’의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마리온 라부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의 작년 성과를 보면, 더는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없다. 금값이 65%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6.5% 하락했다”라면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나 화폐가 아니며, 금이나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규제와 사용 사례가 분명해질 때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양승진 기자 asi1231@

증권가 “코스피 더 간다” 공포지수 뛰고 빗투 늘어

» 1면 ‘100만닉스...’서 계속

증권가는 ‘한국증시를 사라’고 외친다. 신디 박 노무라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모리 기업들이 올해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하며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은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수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고, 씨티그룹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상황이 잦아지자 시장에서는 “현재의 지수 움직임이 정상적인 흐름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1.79포인트(3.86%) 뛴 48.13을 기록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그 경우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 역시 둔화될 수 있다”고 했다.

‘빗투’(빔내서투자)에나서는 개미들이 늘면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31조7123억원으로 불었다. 투자자예탁금은 108조2901억원을 직었다.

/허정윤·신하은기자

K-방산 수주잔고 120조... 시장 다변화로 성장흐름 유지해야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톱티어 K-산업

지난해 방산 '빅4' 합산매출 40조 해외수출 물량 실적 반영 본격화
獨 등 국방예산 바탕으로 추격
차세대 무기 체계 경쟁력 확보와
신흥시장 외연확장 필요성 제기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체결한 대형 계약이 최근 본격적인 납품 단계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이익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로 각국의 국방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업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빅4 총매출 40조원대로...수주잔고 120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빅4'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40조 452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연매출이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4조 6324억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4% 늘었다. 대형 해외 계약이 매출로 잡히면서 수익성까지 동반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6조 6078억원, 영업이익 3조 345억원을 기록했다. 지상방산 부문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로템은 매출 5조 8390억원, 영업이익 1조 566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대를 달성했다. 폴란드 K2 전차 사업 확대와 후속 물량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LIG넥스원은 매출 4조 3094억원, 영업이익 323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천궁-II의 사우디아라비아·UAE 수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 KAI는 매출 3조 6964억원, 영업이익 2692억원을 기록했다. FA-50PH 추가 계약과 KT-1 사업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체계 개발을 마친 KF-21은 양산 단계에 들어섰다.

실적의 기반이 되는 수주잔고도 크게 증가했다. 방산 4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2025년 말 기준 1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7조 2000억원, 현대로템 29조 7735억원, KAI 127조 3437억원, LIG넥스원 26조 2300억

원 순이다. 확보한 물량만으로도 향후 4~5년간 안정적인 생산과 매출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방산 4사의 합산 매출을 48조 184억원, 영업이익을 6조 5359억원으로 추산했다. 해외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 P)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주 금액 기준으로 방산 수출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쟁 격화...기술 경쟁력 강화 요구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독일은 비롯한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대규모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서면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기일 상시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올해 66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독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170조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럽 주요국까지 재무장 흐름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납기 준수 등 강점이 있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국가들의 추격 속도도 빠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차세대 무기체계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우주·무인체계 분야 투자 확대와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 지휘통제(C2) 체계 고도화, 통신·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통합 운용 능력이 향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지목된다.

시장 다변화도 병행 과제로 제시된다. 유럽과 중동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북미 진출을 확대하고 남미·동남아 등 신흥 시장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지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계약이 납품 단계에 접어들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준비 확충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방산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원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재개된 KDDX 사업... 이번엔 '선도함 단가' 변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업계, 물가상승·환율 변동 등에
사업비 최소 20~30% 증액 주장

정부, 기존 총사업비 기조 유지
업계 요구 수용 시 일정지연 가능성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약 2년 표류 끝에 재개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이번에는 선도함 단가를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다. 원가·환율 등 비용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와 기존 총사업비 틀을 유지하려는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입찰 이전 단계부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증액 폭이 확대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물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문제를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앞서 선도함 상세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882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분 약 200억 원을 반영한 수치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9000억 원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사업 표류 기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30%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산 편성 시 통상 연 4~4.5%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설계 완료 이후 약 2년간의 물가 상승분만 적용하더라도 선도함 사업비는 8820억원

기준 약 9500억~96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입장이다.

함정 원가에서 가스터빈·통합마스트·센서·전자장비 등 외산 장비 비중이 큰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방산수요 확대와 환율 변동으로 수입 장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기능 레이더·전투체계·통합추진체계 등 핵심 기술 개발 과정이 포함된 만큼, 추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구 개발 기간 연장과 시험·평가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 준비에 투입된 인력과 설비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선도함 단가가 후속 2~6번함 건조비 기준이 되는 구조를 들어 한 척당 2000억~3000억 원 손실과 조 단위 누

적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 단계로, 입찰 공고에 앞서 예산 규모를 일정 수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총사업비 기조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다. 총사업비가 계획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해 업계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9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재정 당국 역시 대규모 증액에는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의 현실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 전폭 수용은 쉽지 않다고 본다. 최기일 상시대 군사학과 교수는 "업계 요구가 전면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적자 수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향후 함정 건조 과정에서 납기 지연, 계약 이행 리스크, 협력업체 관리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443만원

30대·수도권·은행권·주택대출 집중
부채잔액은 증가세... 누적 규모 확대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30대와 수도권, 은행권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기말 기준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늘어나면서 신규취급 둔화와 잔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09만원 감소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도 2억 128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421만원 줄었다.

신규취급액 감소는 연령·지역·업권·상품별로 보면 30대와 수도권,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됐다. 30대(-818만원), 수도권(-808만원), 은행(-889만원), 주택담보대출(-1421만원), 전세자금대

출(-1414만원)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 연평대에서 모두 감소했고 감소폭은 30대가 가장 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주도했던 30대의 신규 대출은 2억 5533만원으로 전분기(2억 8792만원)에서 3259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이 줄어든 반면, 대구경북권과 강원·제주권 등은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감소한 반면 비은행과 기타 업권은 소폭 증

가했다.

상품별 흐름을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은 증가해 상품 간 차별화가 나타났다.

다만 분기말 기준 부채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5년 4분기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65만원 증가했고,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 5827만원으로 201만원 늘었다. 이는 분기 중 신규취급액이 줄었더라도 누적 부채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중 기준으로는 신규취급액에서 30대(28.9%), 수도권(57.6%), 은행

(50.3%), 주택담보대출(40.9%) 비중이 높았다. 잔액 기준으로는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택담보대출(51.6%)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의 중심축이 중장년·수도권·은행권·주택대에 집중된 구조가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이와 함께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부터 주택대 한도를 축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민주 '사법3법·상법' 추진 vs 국힘 '전면 필리버스터' 맞불

민주, 국회법 근거로 오늘 표결 예정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 처리 계획
국힘 "독재 행위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최장 7박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야 정쟁 법안인 법외국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 개헌 추진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 개정안, 이과 연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

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 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모든 상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이외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함을 알리는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본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 소집에 여야 견해차가 커서 의장도 깊이 고심했다"면서 "합의가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무제한 토론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일정을 작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게 날치기밖에 없다"며 "소수야당이 '이 법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법사위 넘었다

행정·재정 특례, 지원 근거 담겨
대전충남·대구경북은 표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하지만 함께 추진 하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지역 반대 여론을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

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직접 던진 화두다. 이날 중 대전충남, 전남광

주,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남광주 외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

북) 통합 추진을 맡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면 좋는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 민주당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대전충남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선처리한 만큼, 부작용 등을 보완하며 추후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3법 중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상가 임대료 제한, 관리비 올리면 범죄"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관리비 직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후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올리면 안 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질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상당히 많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데,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목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라는 지시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 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

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주문했다.

또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법무부 소관인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부 소관 같다"며 "집단토론,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 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토스뱅크, 차기수장 발표 임박 '흑자전환' 이은미 대표 연임 관심

내달 중 숏리스트 확정, 추천·공시 이 대표, 취임 첫 해 첫 '흑자전환' 작년 3분기 누적순익 136% 확대 내부직원 '횡령' 내부통제 우려도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지난해 '미디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표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적 개선과 경영전략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연임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둘러싼 논란은 부담으로 지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를 확정된 뒤, 평판 조화와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공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24년 457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거두며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 대비 136.2% 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87억원, 2분기 217억원, 3분기 411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4분기 실적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기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도 연임론에 힘을 실는 요소다. 이 대표는 주택 담보대출 출시 등 여신포트폴리오를 넓히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략 연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스뱅크는 현재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지분 투자, 합작 모델 설립, 서비스형 뱅킹(BaaS) 제공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디지털 금융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 유지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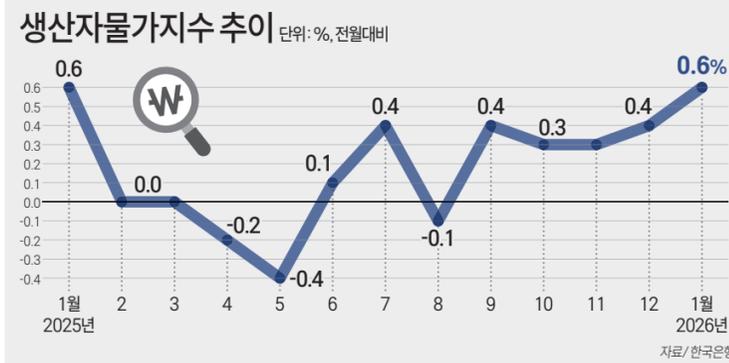
다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은 부담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재무조직 팀장이 27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5월 30일 첫 금융사고 발생 이후 2주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주 뒤인 6월 13일 2차 사고가 난 이후 자체 점검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직원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해당 직원은 사망한 뒤였고, 형사 절차상 공소권이 소멸되면서 횡령 자금 일부는 끝내 되찾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적 개선과 별개로 내부통제 역량을 보다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 단계에 접어들 만큼 수익성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며 "연임 여부는 결국 신뢰 회복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6% 상승

한은, 공산품·서비스 가격 오름세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생산단계 물가 압력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0.7%), 공산품(0.6%), 서비스(0.7%)가 오르면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 상승과 폐기물처리 하락이 엇갈리며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가운데 1차금속제품(3.0%)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8%)가 상승했다. 서비스에서는 금융및보험서비스(4.7%)와 운송서비스(0.7%)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특수분류 기준으로 에너지는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다만 식료품및에너지의 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해 에너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원 성격의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KTX-수서역, SRT-서울역 '교차운행'

코레일·SR, 10% 할인권 이벤트

국도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예매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그동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SRT(410석)보다 좌석수를 2배 늘린 KTX-1(955석)을 투입해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수서발 SRT와 같지만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다. 수서발 KTX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만큼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는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한다. 비상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이 생기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추가 인력도 배치한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을 기념하는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규제 '풍선효과'...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1금융 밀려난 대출수요자 흡수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규모 확대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 새해 들어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증가하면서다. 상대적으로 규제 고리가 약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새해에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8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나 늘었다.

2금융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곳은 상호금융권이다.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분이 1억1000억원에서 1억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었다. 신협은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5000억원 감소했던 대출 규모가 지난 달 3000억원 증가로 반등했다. 연도별 1월 기준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부터 1000억~2000억원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000억원까지 확대되며 증가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 금융사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금융사가 연초 영업

을 재개하고,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들어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은 1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자가 2금융권으로 흡수되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실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는 지난해 10월부터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금융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10월 +3조5000억원에서 11월 +2조1000억원, 12월 -2조원, 지난달 -1조원으로 감소해 왔다.

반면, 2금융권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다 12월 8000억원으로 잠시 축소되더니 다시 지난달 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금융 '유아 ESG 금융교육' 나서

4~5세 아동 500명대상... 기관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ESG 금융교육'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및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을 돕

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5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50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장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미있는 미션 수행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체득 ▲기부 활동을 통한 나눔의 기쁨 경험 ▲돈의 개념 및 소비와 절약 습관을 기르는 금융 기초 지식 습득 등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 중심의 디지털·금융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출사표

안전성·프리미엄 핵심 전략 포스코이앤씨와 수주경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다. 앞서 입찰 참여를 공식화한 포스코이앤씨와 수주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24일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강변 입지 특성과 조합원 요구를 반영해 설계·금융·사업 조건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본 반포를 맡았던 글로벌 건축설계그룹 SMDP와 함께 진행한다. 한강변 입지 감정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신반포 19·25차 조감도(조합원안설계). /삼성물산

디자인과 특화 평면을 통해 하이엔드 주거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업계에서 유일한 신용등급(AA+)을 유지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금융 조건, 중단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SK이노 E&S, 직접생산 LNG 도입... 민간자원개발 '새 지평'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카고 입학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t 공급 계획
이종수 사장 "자원개발 노력 지속"



SK이노베이션 E&S의 LNG수송선이 23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싣고 보령 LNG터미널에 처음 입학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서 직접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LNG)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며 민간 자원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외 탐사부터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한 첫 사례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3일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첫 LNG 카고가 성공적으로 입학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Darwin)

LNG터미널에서 액화한 뒤 국내로 운송한 것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과 생산, 도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는 2012년 지

분 투자 이후 약 1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첫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 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연간 LNG 도입 물량의 약 3% 수준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전망이다.

바로사 가스전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신규 액화 설비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 다윈 LNG터미널을 개조·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을 적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미국이나 중동 대비 운송 거리가 짧은 호주를 거점으로 삼아 물류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번 LNG 도입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1980년대 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며 제시한 '무자원 산유국'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1988년 1월 북예멘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가 울산항에 처음 입학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 가스전에서 생산한 LNG를 국내로 들여오며 자원 확보 범위를 가스 분야로 확대했다. SK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연간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스 약 600만 톤

의 LNG를 확보하고 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성과를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원유와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SK의 집념과 도전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확실한 국제 에너지 시장 속에서 자원개발 노력을 지속해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박승직·박두병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

두산그룹 창업주·초대회장 동반 헌액
박정원 회장 "선대 기업가 정신 계승"



24일 서울 이화여대 경영대학 6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이 헌액 기념패를 들고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그룹

두산그룹의 근간을 세운 故 매헌(梅軒) 박승직 창업주와 故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이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은 서울 이화여대 경영대학 60주년 기념홀에서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박승직 창업주와 박두병 초대회장이 나란히 헌액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경영학회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해 오고 있다. 부자(父子) 경영인이 동시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헌액식에는 박두병 초대회장의 장손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박정원 회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자의 마음으로 걸어갔던 선대의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이 두산의 DNA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선대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두산을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직 창업주는 보부상으로 시작해 포목상, 무역업, 양조업, 운수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으며, 특히 주식회사 전환과 무역업 확장 등을 통해 한국 근대 상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두병 초대회장은 박승직상점을 계

승해 근대적 기업 집단으로 전환시켰다. 1946년 '박승직상점'의 상호를 '두산상회'로 변경하고, 광복 이후 혼란기 속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확립했다. 동양맥주를 필두로 식음료 산업을 육성했으며 건설·식품·기계·유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아시아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민간 경제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경제단체 수장에 올랐다. 퇴임 이후에는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경영학회는 "박승직 창업주는 한국 근대 기업사의 기틀을 마련한 기업가로서 근대적 기업 조직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이후 한국 기업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두병 회장이 추진했던 사업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은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기업 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장인화 회장, 동남아 철강사업 전략 점검

(포스코그룹)

철강사 협력 등 '완결형 현지화' 실행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사진)이 철강 사업의 '완결형 현지화' 실행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5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지역 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외 철강법인의 현지화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권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성장 전략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 회장은 권역 내 주요 법인장들과 함께 올해 경영계획과 안전관리 방침을 점검하고, 공급망 고도화 전략의 추진 방향과 핵심 실행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권역 내 현지 철강사와의 협력 확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안정적 소재 공급 체계 구축 ▲법인 간 시너지 창출 ▲권역 물류 거점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지나해 설립한 싱가포르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이딩 법인 주요 현안 점검 등 철강과 에너지 사업을 아우르는 해외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다.

동남아시아는 자동차·가전·건설 등 전



방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으로 꼽힌다. 포스코그룹은 인도네시아 PT 크라카타우 포스코를 비롯해 베트남(포스코아마토비나·포스코베트남·포스코VST), 태국(포스코TCS·포스코타이노스), 말레이시아(포스코말레이시아) 등 주요 법인을 중심으로 동남아 권역 내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원료 조달부터 생산·판매까지 권역 통합 경쟁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열린 올해 첫 그룹 경영회의에서 "위기 속 실행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투자의 결실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동남아시아 지역 전략회의를 통해 이러한 경영 기조를 해외 사업 현장에서 구체적 실행 과제로 연결하고, 해외 성장 전략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속도

39개 협력사, 시험·연구기관 업무협약
부품·소재 자립화 체계적으로 추진

스트웍스(KLW), 테스코 등 39개 협력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에서 명명했다. 한국재료연구원, 공군항공자원관리단,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상국립대 관계자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부품·소재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부터 시험·평가·인증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력사와 시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기본, 케이피씨엠(KPCM), 한국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설계와 가공 등 항공엔진 개발 전반으로 상생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 함께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국내 정밀주조 전문기업 한국로스트웍스, 성일터빈, 천지산업 등과 협력해 2~3세대 단결정 소재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와 고온 부품을 개발·양산했으며 NADCAP·KOLAS 등 국제 인증도 획득했다. 합작사 씨머텍코리아를 통해서 는 완제품 제조사(OEM)에 코팅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없이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상생을 기반으로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벤츠코리아 'EQE 350+ SUV' 출시

벤츠, 전기 SUV 'EQE SUV' 신규 트림 'EQE 350+ SUV'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비즈니스 전기 SUV 'EQE 350+ SUV'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EQE SUV에 신규 트림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장한 것이다. EQE 350+ SUV는 기존 EQE SUV 라인업에서 사륜 구동 모델이었던 EQE 350 4MATIC SUV를 대체하는 후륜 구동 모델이다.

EQE 350+ SUV는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 거리 467km로 EQE SUV 라인업 가운데 가장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에어매트 서스펜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디지털 라이트, 주차 패키지 등도 적용됐다.

차량의 외관에는 스타 로고 패턴의 블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SUV.

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을 포함한 일렉트릭 아트 라인이 적용됐으며, 역동적인 차체 비율과 근육질의 스포티 디자인, 20인치 5-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을 장착했다. 실내는 일렉트릭 아트 라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12.3인치 와이드스크린 콕핏과 12.8인치 OLED 센터럴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구현했다. 트렁크는 520L의 기본 용량과 함께 2열 폴딩 시 최대 1675L의 여유로운 적재공간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상조 1000만 시대... 10년새 가입자 2.4배·선수금 3배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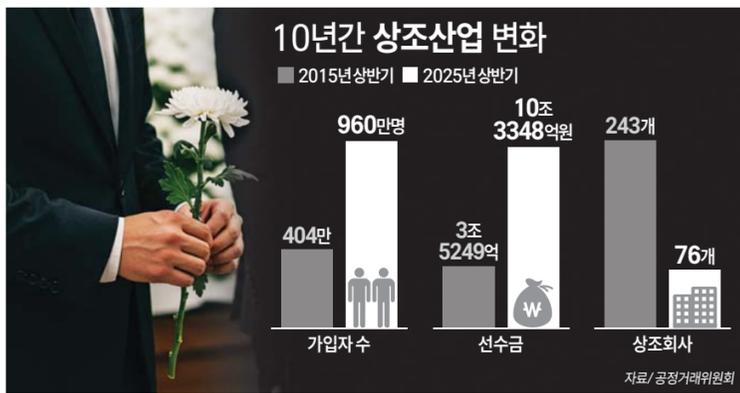
상조산업 선수금 10조 훌쩍 넘어 관련사, 10년새 243→69곳 감소 퇴출·M&A 거치며 대형사 중심 전환 공정위, 제도 개선에 할부거래법 개편 가입조회·피해보상 통합플랫폼 추진 업계 "진흥 근거법 마련 필요" 촉구

상조산업이 가입자는 1000만명에 육박하고 선수금은 10조원이 훌쩍 넘는 등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10년새 70% 넘게 줄며 빠르게 재편됐다.

이런 가운데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을 쌓아둔 것으로 쓰는 것을 막는 등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상조 찾아줘' 온라인 서비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5일 공정위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당시 404만명이었던 상조상품 가입자는 2025년 상반기 현재 960만명으로 2.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선수금이 이 기간 3조5249억원에서 10조3348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상조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 기간 243곳에서 69곳(선불식 할부거래법)으로 70% 넘게 감소했다. 부실기업 퇴출, 기업간 인수합병(M&A), 대형화·규모화 등이 주요 이유다. 69개사 중에선 상조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가 57개, 상조+여행이 12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는 2022년부터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 7곳을 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갯수는 지난해에 총 76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사업자 법집행 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의 경우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이,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에는 공제조합 범위반 시설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마련,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등의 내용이 각각 포함돼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할부거래법 신규등록 제한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 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까지 확대했다. 또 관련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조분야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상조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처리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도 빠르면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가 구축해 놓은 온라인 플랫폼 '내상조 찾아줘'의 경우 검색 결과 나온 회사명을 선택하면 해당 회사가 아닌 공정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때 업계내에서 제기됐던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쉽다"면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회계기준을 바꾸고 상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주도한 관련 법에는 ▲상조산업 육성 기본 계획 ▲상조산업 분야 재정 지원 ▲상조서비스 선도기업 인증 ▲상조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에이스침대

'로얄에이스 100' 선공개 안락함·지지력 강조

롯데백 본점·잠실, 현대백 판교 팝업

에이스침대가 로얄에이스(Royal Ace)의 신규 최상위 모델 '로얄에이스 100'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24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3월12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는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본점(8층)과 잠실점(10층)의 더웨이브 행사장, 그리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장(8층) 등 프리미엄 리빙 수요가 집결된 수도권 핵심 거점 3곳에서 진행한다. 팝업 종료 후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9층)에서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상설 전시를 한다.

선공개한 신제품 로얄에이스 100은 '최고의 가치, 가장 완벽한 밸런스'라는 수식어가 붙는 로얄에이스 시리즈의 최고 사양 제품이다. 하드와 소프트 사이의 균형 잡힌 탄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드러운 안락함과 탄탄한 지지력을 동시에 구현해 최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문 매니저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체형 및 수면 습관에 맞는 상담 및 체형을 경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IP 경쟁력 드라이브... 등록·유지부담 낮춘다

중견련, 지재처장에 정책 10건 전달 최진식 회장 "지재권은 성장 성패좌우" 김처장 "IP혁신...현장 목소리 반영"

중견기업계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정책 10건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접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권 승격의 취지와 확대된 역할에 걸맞도록 특허, 거래 시장 활성화 등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선 창의적인 정책 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대비 2배 이상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견인하는 데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특히 변화된 무역·통상 질서 아래 보다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선도적 위상 확보를 위해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PPH) 협력국 확대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 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 중견련 사무실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접견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건의집을 전달하고 있다. /중견련

청호나이스

25평형 '서밋 타워' 선배 최저 18.4dB 저소음 구현

공기질 분석해 절전·쾌속 등 자동전환

청호나이스가 공기청정기 '서밋 타워'를 출시했다.

24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서밋 타워'는 83.2㎡(25평형) 공간에 적합한 제품으로, 입체적인 공기 순환과 스마트 제어 기술을 결합해 빠르고 균일한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과 저소음 설계를 바탕으로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청정 성능을 제공한다.

제품은 공기역학 설계를 기반으로 상단부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공기를 입체적으로 순환시키는 '에어리듬 모션'을 구현했다. 일반 공기청정기가 한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방식과 달리 상단 토출부가 움직이면서 바람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일반모드 대비 최대 5배 역동적인 기류 흐름을 형성해 공간 전반을 고르게 정화한다.

여기에 AI모드를 탑재해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공기상태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했다. AI모드를 설정하면 실내 공기질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분석해 절전·쾌속·취침 모드로 알아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고효율 팬과 공기유로 구조 최적화 설계를 적용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과 최저 소음 18.4dB를 구현했다. /김승호 기자

세계은행과 '한국형 中企정책' 전수·확산 나선다

중진공, 피지서 합동 정책연수 축적된 경험·운영 노하우 공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세계은행(WB)과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 모델 확산에 나선다.

중진공은 26일까지 피지에서 세계은행과 '중진공-세계은행 합동 정책연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수는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을 전수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세계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24일(현지시간) 피지에서 진행된 중진공-세계은행 합동 정책연수 기념촬영 사진.

등 한국신탁기금 지원을 받은 5개국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기업 진단 기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통신3사, MWC26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 해외에 소개한다

SKT AI·ESG 등 15개사 기술 선택
실제산업 적용 중인 AI솔루션 강조

KT 중소벤처기업 12곳 판로 개척
AX기반 기술로 유럽시장 진출 모색

LG U+ 쉬프트 연계 10개사 전시
이중 3곳 '4YFN 어워즈' 후보 올라

통신 3사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현지 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의 부대행사인 '4YFN(4 Years From Now)'에 참가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각각 단독 전시관과 상생협력관을 마련하고 AI와 ESG, AX(AI 전환)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세계 무대에 소개할 계획이다.

2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오는 3월 2일 개막하는 MWC2026에서 국



브로즈 김찬일, 김승운 대표와 임직원들이 'SKT 스타트업 전시관'의 슬로건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SKT

내 유망 스타트업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전시관을 꾸리고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SK텔레콤은 이번 MWC26이 열리는 피라 그란비아 8.1홀에서 'SKTCH Today, Change Tomorrow(스케치 투데이, 체인지 투모로)'를 주제로 단독 전시

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6회째 참가하는 SKT는 메사 쿠어컴퍼니·콕스웨이브·베림랩 등 AI 분야와 스트레소솔루션, 식스티헤르츠 등 ESG 분야를 아우르는 스타트업 15개사의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보안, 공간,

콘텐츠 영역에서 실제 산업에 적용 중인 AI 솔루션을 강조하며, 전시 이후인 3월 4일에는 유럽 주요 벤처캐피탈(VC)을 초청해 참여 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임종환 SKTESG추진실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단독 전시관 마련의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는 '상생협력관'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12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스튜디오프리월루션·이루온·피치에이아이 등 참가사들은 AI 솔루션과 로보틱스 등 AX 기반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KT는 지난해 수출 지원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항공 및 숙박 지원은 물론 유럽 현지 VC와의 투자 상담회와 GSM A 공식 피칭 세션을 통한 IR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이원준 KT 구매실장은 신성장 분야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쉬프트(Shift)'와 연계된 스타트업을 포함해 총 10개사의 전시를 지원한다. 에임인텔리전스·인핸스·옵트에이아이 등 5개사는 LG유플러스와 보안 및 온디바이스 sLLM 분야에서 밀도 높은 협업을 이어온 기업들이다.

특히 이 중 3개사는 4YFN 참가 기업 중 최우수 기업을 가리는 '4YFN 어워즈 톱 20' 후보에 올라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LG유플러스는 참가 기업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주요 파트너사와 공동 펀드를 조성해 혁신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목 LG유플러스 투자/제휴담당은 이번 참가가 실제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에이전트 폭주에 보안 체계 못 따라가... 권한 최소화 등 대책 필요

AI에 과도 권한 위임 시 유출 등 위험
기업 통제강화, 가시성 확보 필요성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이 기업 보안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기존 보안 체계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SDS가 국내 IT·보안 담당 실무자와 관리자, 경영진 6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2026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AI 기반 보안 위협'을 꼽았다. 조사 대상이 실무부터 의사결정권자까지 포괄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위기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됐다는 평가다.

삼성SDS 측은 생성형 AI, 특히 AI 에이전트의 도입과 확산이 새로운 보안 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AI 기반 보안 위협'이 기업의 큰 과제로 떠올랐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협을 동반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에이전트가 실행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를 남용할 경우, 데이터 유출이나 무단 작업, 시스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보안 위협은 모델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출발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존 최고 수준의 AI 모델로 평가받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역시 적대적 프롬프

팅을 통해 안전장치 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딥시크' 등 일부 오픈소스 모델은 가드레일 구축이 미흡해 비교적 단순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이른바 '탈옥'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용자의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AI 에이전트 확산은 보안 리스크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MS의 보안보고서 '사이버 펄스'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의

80% 이상이 AI 에이전트를 운용 중이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 통제를 도입한 조직은 47%에 그쳤다. 기술 도입 속도를 보안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모리스 II'로 불리는 적대적 자가 복제 프롬프트 원은 상호 연결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감염시켜 스팸을 유포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 '옥탄AI'의 '오픈클로'는 설계 결함으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해커 조직의 AI 악용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 구글위협인텔리전스그룹(GTIG)에 따르면 기존 멀웨어가 사전에 작성된 해킹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외부 AI 모델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필요한 명령을 그때그때 생성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프롬프트플렉스'로 불리는 악성코드는 제미니와 수만 차례 상호작용하며 탐지

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코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MS는 사이버 공격자가 AI 에이전트의 메모리를 조작해 추론 방식을 왜곡하는 '메모리 포이즈닝' 기법을 경고하며,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AI 에이전트가 순식간에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이중 스파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기업들의 통제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보안 우려가 큰 외부 AI 모델과 특정 AI 에이전트의 사내망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AI 도입 전 전수조사를 통한 가시성 확보와 함께 AI 가드레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삼성SDS와 MS 등은 AI에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민감한 명령 수행 시 반드시 인간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준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LG U+, 글로벌 최고 AIDC 전략 공개

MWC26서 '파주 AIDC' 적용
최신기술·차세대 운영전략 소개

LG유플러스가 'MWC26'에서 LG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센터(AIDC) 전략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MWC26에서는 수도권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파주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최신 기술과 차세대 운영 전략이 공개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파주 AIDC는 핵심 요소인 운영·냉각·전력 시스템에 LG유플러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사의 기술력이 총동원된다.

먼저 AIDC의 핵심 난제인 발열 문제

는 LG전자와의 협업으로 해결한다. 고성능 GPU가 생성하는 열은 기존 공기 냉각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에 LG유플러스와 LG전자는 GPU 칩에 전용 급속판을 부착하고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켜 열을 직접 제거하는(D2C) 방식의 액체냉각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 자체 실증 결과, 이 방식은 기존 공기 냉각 대비 약 24%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있었다. 액체냉각에 필요한 냉각수는 LG전자의 공랭식 '프리쿨링 칠러'가 생산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 적용된다. 파주 AID

C에는 고성능 UPS 배터리가 탑재돼 정전이나 전압 변동 시에도 즉각적으로 전력을 보정하며,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자체 설계한 다중 안전 구조로 화재와 열폭주 위험을 최소화해 무중단 운영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그룹사 기술을 통합한 운영 역량을 데이터센터 전반에 적용한다. 특히 지난 27년간 전국 15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결집해 설계·구축은 물론 운영까지 직접 담당한다.

LG유플러스는 파주 AIDC를 기점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협력모델을 개발해 고객사의 데이터센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통합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컴투스홀딩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선점 박차

비덱스와 인프라 구축 '맞손'

컴투스홀딩스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업 비덱스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컴투스홀딩스는 24일 블록체인 전문 기업 비덱스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게임 및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결제 환경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구조를 갖추며,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이를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계해 결제 편의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구조 설계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보안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거래, 콘텐츠 결제, 디지털 자산 교환 등 다양한 활용 모델을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웹3 생태계 선점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

코스피 6000 치솟는데... 외국인, 주식 팔고 채권 담았다

올 주식 10조 매도, 채권 17조 매수
한국, '위험 신흥국' 인식 있지만
채권은 금리 높고 안전한 투자처



ChatGPT로 생성한 '주식 팔고 채권 매수하는 외국인' 이미지.

주식은 던지고 채권은 쓸어담고. 올해 외국인의 투자 행태다. 코스피가 6000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연초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10조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채권은 17조원 넘게 사들였다. 한 달 평균 8조원 넘는 원화채 쇼핑이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 국채가 더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퍼지는 와중에, 한국 채권이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안전 자산 중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는 모양새다.

◆한국 주식은 '셀', 채권은 '바이'
주식시장만 보면 '셀(Sell) 코리아' 우려가 크다. 하지만 채권시장은 전에 없이 강한 '바이(Buy) 코리아' 행렬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에서 매수한 채권은 17조3600억원 규모다. 지난 한해 1~2월 순매수액(8조1935억원)보다 2배 많다. 상장 채권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금

감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상장 채권을 7조710억원 순매수하고, 3조514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3조557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 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다. 현재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잔고는 330조457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다. 외국인은 국고채를 중심으로 국내 채권 투자를 늘렸다. 순투자액의 85% 이상(6조470억원)은 국채로 쏠렸다. 한국 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특수채에도 2조1090억원 투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분위기는 판판이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국 채권은 안전 자산" 주식시장은 냉탕, 채권시장은 온탕인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지는 걸까.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위험 신흥국'이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는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국가 분류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에 속해 있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국내 외환 시장 24시간 개방 등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지만, 선진 시장 클럽에 끼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등이 터지면서 투자자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면서 '위험 신흥국'으로 분류된 한국 주식에서도 덩달아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시장 평가다. 차익 실현 매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6월 3일) 이후 12월까지 코스피시장에서 5조7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반면 채권시장에선 대접이 다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며 안전한 투자처로 '인증'받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하면서 "이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그리고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대응 역량에 기

반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영향도 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금리 상승) 샀다가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값이 오를 때 팔아 차익을 얻겠다는 '저가 매수' 전략이다.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98%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연 3.385%보다 높다. 반면 같은 기간 동일 신용등급인 벨기에(연 3.1%대)와 대만(연 1.4%대)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제로 금리에 머물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최상위 수준의 신용등급을 자랑하는 독일(연 2.7%대)과 싱가포르(연 1.9%대) 등과 비교해도 한국 금리 수준이 더 높다. 시장 참여자들은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 채권은 금리가 비교적 높은데다 경상수지 흑자 국으로 통화 가치가 머지 않아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가 있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달러를 들고 와서 채권을 사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감원, '운용사, 수탁자책임 강화' 주문

선제적 내부 체계 정비 필요성 강조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예정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초준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과 평가결과 공개가 예정된 만큼, 선제적 내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를 110조원 수준으로 키워내며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도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steward) 역할 수행은 아직 미흡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자리에는 황성업 금투협회장과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023년 말 58조6000억원에서 2025년 말 10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측면에서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

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상승했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 99.6%, 공무원연금 97.8%를 기록했다. 반대로 역시 연기금 대비 낮아, 중요 안건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 부원장은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의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며 "중요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일괄 찬성·불행사한 사례는 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함께, 투자자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

역을 적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평가 논의 역시 병행되고 있어, 자산운용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는 설명이다. 황 부원장은 "스스로 변화가 늦어질 경우 결국 외부적 요



금융감독원 전경. /손진영 기자 son@

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자율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과 평가결과 공개가 예정돼 있다. 점검 항목은 수탁자책임 정책 수립·공개,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정책, 주주참여 활동 공개, 이행보고서 작성, 전담 조직·인력 확보, 전문성 확보, 위탁운용사 관리 등 12개에 이른다. 향후 적용 대상은 PEF, 보험사, 증권사, 은행, VC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산군 역시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채권 등으로 넓어진다. 황 부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와 ESG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3차 상법개정 앞두고 자사주 처분 급증

지난해 12월만 25.3% 처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작년 말 부랴부랴 자기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작년도 자기주식 처분 공시의 25.3%가 12월 한 달에 몰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 건수는 월 평균 43.9건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적이 없었는데, 12월에만 무려 164건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에 이뤄진 자기주식 처분은 절반 이상(55.5%)이 특정 대상

20% 이상인 기업은 2.3%에 달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총 647건이었고, 처분 유형별로는 임직원 보상이 47.4%를 차지했다. 이어서는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 등 순서로 비중이 컸다.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직계비속,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등 특정 대상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들이 이처럼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2011년과 2015년 상법 개정 때 따른 자기주식 보유 자율성의 확대가 "당초 입법 취지인 재무적 유연성 확보를 넘어, 주주 보호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 공시해야"

금융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되며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 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내용이나 분량 등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 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 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일대일 공시 컨설팅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4·9일)를 제공해 고배당기업의 공시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산업부, 조선업 역대 최대규모 지원 친환경·AI·국산화 등 3200억 투입

글로벌 경쟁 대응... 시장 우위 유지
34개 신규기술개발 과제 본격 추진
AI 조선소 구현·자율운항선박 실증

정부가 올해 3000억 원대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 조선 산업의 세계시장 우위 유지를 지원한다. 조선업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 경선박 기술개발 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 대비 23% 늘어난 3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K-조선 수출실적은 지난해 318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8년 사이 최대를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증가(70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한 것. 세계 수주 점유율이 20.2%로 전년대비 6.2%포인트(p) 늘었고 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는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경쟁국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는 데다 국제 패러다임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 조선사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추진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화 AI 기술의 업계 확산을 위해 생산공정 및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정부는 그간 인력의존도가 높았던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t)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조립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 및 작업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기자재의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쇠방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coul.co.kr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 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에서 멘토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농진청, 브라질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브라질 농업정부기관 협력 강화

농진청이 브라질 농업정부기관과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4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농약시장인 브라질과 농업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 농약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사진)은 카를루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루 농업축산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농약 인허가 간소화 협력기관인 브라질 농업축산부, 위생감시청, 환경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에 대한 규제제도, 등록과정 및 평가과정 등의 정보 교류에 나선다. 농진청은 또 기후변화 대응 국제 농업 현안을 해결할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브라질 농업연구청과도 협약을 맺었다.

이승돈 청장은 같은 날 실비아 마리아 폰세카 실베이라 마스루하 브라질 농업연구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두 기관은 미생



물 기반 농약·비료의 브라질 현지 실증, 버섯 유전자원 발굴 및 재배 자동화 기술 개발 분야 공동연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상호 방문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 인적 교류와 공동 활동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농약 시험·평가 기술이 브라질 측에서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 농약 등록에 드는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농약 인허가 기관이 3개로 분산돼 농약 등록에만 평균 7~8년 이상이 걸린다. 이를 약 5년 단축할 경우, 제품 1개당 1300억 원 이상의 초기 수익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승돈 청장은 "이번 한-브라질 MOU 체결은 농약 수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농업기술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도 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란봉투법 '구조적 통제' 기준 완화

고용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 확정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 방안 마련

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이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

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과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과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니가타 농업전시회' 한국관 운영

K-농기자재 수출 확대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인 니가타 농업전시회(이하 니가타 현)에 한국관을 운영한다. 니가타 현은 일본 내 대표적인 농업 생산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2026 니가타 농업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친환경 농자재, 비료, 사료 분야

1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일본 바이어 대상의 제품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자동화와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을 주요 주제로 약 200개 기업과 1만2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형 B2B 행사다. 정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시장 정보 제공부터 현장 네트워킹까지 종합 지원에 나선다.

박람회 전 날에는 일본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행사 기간에는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또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기업과의 비즈니스 리셉션도 마련한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행사가 기존 협력 관계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협력해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운수업계 전기·수소버스 도입 지원

구매용자 사업... 차량 한 대당 2억

운수업계의 친환경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정부가 신설한 올해 구매용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운수업자 등은 차량 한 대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용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용자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된 시중은행 14개사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5년 상환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대출금리는 기후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고, 정책용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포항시, 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AI 경쟁력 강화

‘경북 AX 인공지능 전환 랩’ 개소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232억 투입
K-DT 과정 운영... 전문인재 확보

포항시가 주력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역 산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포항테크노파크에 지역 최초로 ‘경북 AX 인공지능 전환 랩’을 열고,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까지 약 232억 원을 투입해 GPU 기반 초거대 AI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2030년 AI 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 인재 확보 전략도 병행한다.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과 산업인공지능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고급 AI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산업 고도화의 동력으로 삼겠다



포항시는 23일부터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교육장에서 ‘K-Digital Training(K-DT) AI·빅데이터 전문가 13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에서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23일부터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교육장에서 ‘K-Digital Training K-DT AI·빅데이터 전문가 13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DT 과정은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경북대학교 데이터융합연구원이 운영하는 과정은 ‘고성과 K-DT 과정’으로 선진계 지방 훈련기관 중에서도 성

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13기 모집에는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주간의 사전교육과 코딩 테스트,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3명이 선발됐다. 선발 인원의 약 78%는 비전공자로, 오는 8월 19일까지 6개월간 총 976시간 교육을 이수하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AI 기초 이론과 프로그래밍부터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까지 전반을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경북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타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했던 포항 출신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수료 이후 지역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강화해 교육-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북대학교 K-DT 과정은 SL(취, 아진산업, 일지테크, 발레오모빌리티 등 지역 제조기업과 연계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취업률은 77.9%를 기록하고 있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글로벌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항 출신 청년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s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교육청

‘신학기 준비 점검단’ 구성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안전·건강 관리, 고교학점제 안착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 전 학교별 준비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분야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고교학점제, 수업·평가 혁신, 민주시민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방과후,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 안전·건강, 학교폭력 예방, 교원 교육 전담 여건 조성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경남교육청

교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남교육청이 올해 8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정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들이 학생 발달부터 맞춤형 사례 관리,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맡는다. /경남=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악기뱅크’ 운영

전남교육청은 학교 내 유휴악기를 공유해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악기뱅크’를 운영한다.

‘악기뱅크’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악기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해 필요한 학교에 대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현악기·관악기·타악기 등 1000여 점의 다양한 악기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20점이 대여 및 관리전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악기뱅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교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교육청

‘미래아이유치원’ 8개원 선정

부산교육청이 놀이 중심 디지털·AI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한 ‘미래아이(AI)유치원’ 8개원을 최종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에는 47개원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선정된 8개원은 선도형에는 공립 강서유치원, 공립 방곡유치원, 사립 초록유치원, 사립 정관버들리유치원이, 성장형에는 공립 금곡나래유치원, 공립 남명유치원, 사립 민들레유치원, 사립 엘리유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부산교육청은 미래아이유치원을 통해 부산형 미래 유아 교육 모델 정립에 본격 나선다는 구상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는 지난 23일 국립경북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업스테이지와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 AI 혁신인재 키운다

경국대·아마존 등 4자 업무협약 AI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 양성

경북도는 23일 도청 사립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와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 업스테이지, 지역 거점

국립경북대학교가 힘을 모아 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실무 특화 커리큘럼 구성과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양성 ▲대학-기업 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성과 공유 ▲인공지능 전환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과 현장 성과 확산 ▲기업 전문가 멘토링과 대학-기업 인턴십 운영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의령군, 경남도 내 주거환경 만족도 1위

의령군민의 삶의 만족도가 경남 도내 최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일상적 걱정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발표한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령군은 삶의 질 관련 주요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교통·소득·소비, 일자리·노동, 교육 등 5개 분야 12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삶의 만족감 부문에서 의령군은 ‘최근 자신의 삶’ 6.8점, ‘전반적 생활’ 6.6점, ‘어제 행복’ 6.6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정적 지표인 ‘어제 걱정’은 3.6점으로 도내 최저를 기록, 높은 행복감과 낮은 걱정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뚜렷이 보여줬다.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만족도와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모두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4.5배 회수

박형준 시장 “지역기업 투자 확대”

부산시는 2015년 출자해 조성한 벤처투자조합인 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벤처투자조합이 올 10월 청산을 앞두고, 출자금 대비 4.5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합은 총 310억원(부산시 100억, 성장금융 100억, 우리휴쇼핑 100억, 스톤브릿지벤처스 10억) 규모로 결성됐으며, 현재까지 310억원 중 279억원이 배분 완료됐다.

시는 이미 90억원을 회수했으며, 올해 내 총 350억원(포드폴리오의 현 주가 수준 및 기대 수준 기준 회수 금액) 상당을 회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출자 원금 대비 4.5배 상당의 멀티플

(Multiple)과 15.18%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기록하는 성과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대규모 회수를 계기로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회수 재원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 공모에 참여해 기존 미래성장펀드·지역스케일업벤처펀드에 이어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펀드 조성-투자 연계-후속 지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진주시, 우주항공 기업 유치활동 결실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 본격 투자

진주시의 우주항공 기업 유치 활동이 실제 투자로 결실을 보고 있다.

시는 항공기 부품 전문 기업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가 ‘경남우주항공공기산업단지’에 본격 투자에 나섰다 밝혔다.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는 지난해 10월 경남·진주시와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월 8일 부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20일에는 추가 부지 확보 계약도 추진하며 중장기 사업 확장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핵심 연구 개발 기능은 수도권에, 대규모 생산·시험·평가 기능은 진주에 배치하는 ‘기능 분산형 모델’을 통해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진주시청 전경.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AI가 식단 짜고, 로봇이 튀긴다... '데이터 플랫폼' 전환

식품·외식업계, 산업 구조재편 가속

조리·매장 운영 자동화 등 확산
인력난 넘어 '데이터' 축적 경쟁
조리시간 등 표준화 운영 효율 ↑
혈당·오믹스 등 생체데이터 결합
맞춤 영양·헬스케어 서비스 확장



식품·외식업계가 로봇·AI·생체데이터 기술을 축으로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리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되며 전통 제조업 성격이 강했던 식품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정부의 푸드테크 육성 기조 속에 식품·외식업계가 로봇·AI·생체데이터 기술을 축으로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리 로봇과 매장 운영 인공지능(AI), 생체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되며 전통 제조업 성격이 강했던 식품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R&D)·로봇 보급·수출·인력 양성 등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신고 사업자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리·서빙 로봇 등 푸드테크 도입이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bhc는 튀김 공정을 자동화한 로봇 '튀봇'을 전국 40여개 매장에 도입했고, 교

촌치킨은 반죽 배합 공정을 자동화 장비로 대체했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패티 조리 자동화 로봇 '알파그릴'과 튀김 로봇 '보글봇'을 도입해 조리 시간을 단축했다. CJ푸드빌은 빙스 등 외식 브랜드에 조리 로봇을 도입해 국수·쌀국수 메뉴를 자동화했다.

외식 매장의 조리 자동화는 인건비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메뉴별 조리 시간, 판매량, 재고 소진 속도, 시간대별 주문 패턴 등을 표준화해 축적함으로써 가맹점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예측과 상품 기획을 고도화하는 기반이 된다. 여기에 별도로 축적되는 건강·생체 데이터를 결합하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고 특정 소비자군을 겨냥한 기능성 식품·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식품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오믹스(OMICS) 분석 인력을 확보하며 생체 데이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믹스는 유전체·단백질 등 생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사람마다 다른 생체 반응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식사 후 혈당이나 대사 반응 차이, 영양 흡수 효율 등을 데이터로 해석해 개인별 식단·영양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대상웰라이프는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혈당 관리 플랫폼 '당프로 2.0'을 고도화하며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앱 'MyTHS' 개발을 진행 중이다. 풀

무원도 2주간 식단, 혈당, 생활 리듬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뉴트리션 디자인 프로그램(NDP)'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 개인화를 강화하고 있다. AI 식단 추천 기능 확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건강 지표와 식단 관리 테마로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식품산업 경쟁력이 원재료 조달력이나 브랜드 인지도보다 데이터 축적 능력과 자동화 수준에 좌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 조리와 개인 맞춤 영양은 각각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플랫폼 산업"이라며 "앞으로 식품기업은 제조사가 아니라 데이터 기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 자체보다 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역량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침엔 죽, 오후는 커피” 본아이에프 '복합운영' 박차

컨세션 사업 전략적 확대 본격화 시간대별 수요 맞춰 브랜드 조합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가 컨세션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기존 특수상권 매장 운영 경험과 가맹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컨세션 사업을 별도 사업 영역으로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2002년 '분죽'으로 시작한 본아이에프는 현재 전국 22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식을 중심으로 도시락·정찬·보양식·라면·커피·베이커리 등 총 8개 브랜드를 보유해 다양한 소비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외식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태다.

회사는 그동안 병원·복합몰·역사 등

특수상권에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실제로 '분우리반상'은 병원 상권 매장에서 성과를 내며 일부 점포가 월 매출 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사업성을 입증했다.

이번 핵심 전략은 '다브랜드 복합운영'이다. 단일 브랜드 중심이었던 기존 컨세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특성과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 브랜드를 조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역사 상권에서는 아침에는 죽·도시락, 점심에는 한식 정찬, 오후에는 커피·베이커리를 배치해 한 공간에서 하루 식사 수요를 모두 흡수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외부 브랜드 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13명 규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실행력을 강화했다. 올해 목표는 30개 사업장 확대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봄 할인전 '고래잇 페스타'

수산·나물·딸기 최대 50% 할인
삼겹살·목심 행사카드 결제 시 반값



26일부터 열리는 고래잇 페스타 포스터. /이마트

이마트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제철 먹거리부터 가전제품, 최신 스마트폰 사전예약 혜택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14일 간 열린다.

행사 1주 차인 다음 달 4일까지는 봄 제철 수산물과 나물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한다. 남해안 봄명개는 반값에, 생주꾸미와 생갯오징어는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러시아 대개는 28일 하루 동안 반값 특가로 8톤 물량을 한정 판매한다. 청도 미나리를 비롯한 봄동, 달래 등 봄나물 7종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과일 매출 1위인 국산 딸기 전 품목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다음 달 3일 삼겹살 데이를 겨냥해 돼지고기 물량도 760톤 규모로 대폭 늘렸다. 100g당 880원 초특가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부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국내

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은 28일부터 4일간 특정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 시 반값에 제공한다. 가전제품과 주류 행사도 풍성하다. 무선 청소기와 전기밥솥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손종욱 기자

GS25, 내달 1500종 '통큰 할인' 진행

생리대 역대 최다 97종 행사

편의점 GS25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1500여 종의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GS25가 지난해 3월 초 전국 학원가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월 동기 대비 감압은 4배, 도시락은 3.6배가량 급증했다. 즉석 치킨 매출은 10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컵라면, 생리대, 필기구 등 학생 선호 품목 전반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GS25는 간편식과 생활용품 등 9개 핵심 상품군을 선정해 집중 할인에

나선다. 흑백요리사 협업 간편식 14종은 삼성월렛머니 결제 시 80% 저렴하게 선보인다. 도시락은 1000원대, 삼각김밥은 3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 앱을 통한 배달 및 포장 주문 시에도 반값 할인을 적용한다.

필수 생활용품 혜택도 크게 늘렸다. 역대 최다 규모인 97종의 생리대를 대상으로 1+1 또는 2+1 행사를 열고, 특정 브랜드 상품은 최대 60%까지 가격을 낮춘다. 업계 단독으로 인기 과자 6개 묶음 구매 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요 컵라면과 이온 음료 텀 증정 행사도 이어간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간편식 뜬다”... CU, PB·초저가로 승부

PB 29종 확대·특템 시리즈 강화

편의점 CU가 고물가 시대에 늘어나는 간편식 수요를 겨냥해 자체 브랜드 피빅 더 키친과 초저가 특템 시리즈를 앞세워 간편식 라인업을 전면 새단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CU의 간편식 매출은 2023년 26.1%, 2024년 32.4%, 2025년 17.1% 오르며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CU는 24일부터 간편식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

략을 본격화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CU의 자체 상표를 간편식 영역으로 확장한 피빅 더 키친이다. 밥과 반찬을 분리한 2단 도시락 구조로 반찬 비중을 크게 늘리거나, 입맛을 돋우는 핵심 재료를 듬뿍 넣은 제품 등 총 29종을 차례로 선보인다. 샌드위치와 샐러드에는 친환경 용기를 적용하고 조리면에는 스팀 밸브 기술을 도입해 식감을 대폭 개선했다.

가성비를 극대화한 특템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3300원짜리 덮밥과 2200원짜리 김밥 등 3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알찬 한 끼를 구성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웰푸드

“편치하고 외치고 짝는다”

크런키, '스트레스 타파'

대치동 학원가서 체험형 클래스 운영

롯데웰푸드의 스테디셀러 초콜릿 '크런키'가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특별한 학원을 열었다.

롯데웰푸드는 10대 청소년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오는 3월 9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역삼로 466)에서 '크런키 스트레스 타파 학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최근 크런키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코미디언 '이수지'의 부캐들을 활용해 꾸며졌다.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크런키 스트레스 타파 학원 곳곳에서는 브랜드 모델 이수지의 1인 3역 '일타강사'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크런키를 활용한 스트레스 타파 방법 '스트레스 빠삭 공식'을 배울 수 있다. 총 3교시로 구성된 체험형 스트레스 타파 클래스를 준비했다.

1교시는 크런키 특유의 바삭함을 체험하는 '스매쉬 클래스'다. 내려치고, 편치하고, 두드리는 다양한 액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2교시는 방음 부스에서 진행되는 '사우딩 클래스'다. 클래스 통과 데시벨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껏 내지르는 외침은 짜릿한 해방감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크런키. /롯데웰푸드

차세대 성장안 '방사성의약품' 방점... 개발·육성 속도낸다

듀캠바이오-뉴로핏

퇴행성 뇌질환 진단플랫폼 개발
하나의 AI 기술, 두가지 질환에 도입

퓨처캠 전립선암 치료제 투약 개시
셀비온, 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SK바이오팜 테라노스틱스 전략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겨냥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확충, 공급망 강화, 진단 영역 확대 등으로 쟁쟁함에 나서고 있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듀캠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3일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캠바이오는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뉴로핏과 퇴행성 뇌질환 진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로핏은 'AI 활용 초기 진단영상 생성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듀캠바이오는 자사 주력 품목에 'AI 활용 초기 진단영상 생성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별도 임상시험을 수행하



방사성의약품의 주요 성분인 동위원소를 생성하는 가속기.

/듀캠바이오

고 국내 및 해외 용법용량 추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맡는다.

양사가 개발하는 기술은 방사성의약품 섭취 정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약물 분포를 예측하는 등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게 된다. 특히 하나의 AI 기술을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두 가지 질환 모두에 도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듀캠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기반 진단제를 보유하고 있어 진단 영역에서 입지를 다졌다.

치매 치료제 투약의 경우,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한다. 이때 듀캠바이오의 '비자밀', '뉴라체크' 등은 베타 아밀로

이드 측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듀캠바이오는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는 18F-FP-CIT도 판매하고 있다.

듀캠바이오 측은 "비자밀은 영상을 더 정밀하게 읽는 도구인 데 비해 이번 플랫폼 개발은 영상을 AI로 직접 생성하는 기술 혁신"이라며 "AI로 촬영 프로토타입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전례가 없어 향후 국내 외에서 상업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에서도 파이프라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 퓨처캠, 셀비온 등은 국

산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한다.

퓨처캠은 지난달 국내 서울성모병원에서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임상3상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FC705의 방사선학적 무진행 생존기간, 객관적 반응률, 전제 생존률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임상2a상을 진행하고 있다.

퓨처캠 측은 "국내 임상3상 첫 환자 투약은 FC705 개발이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글로벌 임상도 해외 주요 시장에서 기술이전 논의 진행 가능성도 있어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셀비온은 지난해 12월 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립선암 치료제 'Lu-177-DGUL(포큐보타이드 사테트라세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GIFT)으로 지정받아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셀비온 측은 보다 신속한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차세대 성장 방안으로 방사성의약품을 육성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올해부터 방사성의약품 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원료·동위원소 공급망 구축, 파이프라인 발굴 및 전임상 수행, 글로벌 개발 확대 등으로 방사성의약품 사업을 구체화한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진단과 치료를 연계하는 테라노스틱스 전략으로 전주기를 아우르며 경쟁력을 높인다.

표적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SKL35501'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225(225Ac)가 방출하는 고에너지 알파선으로 암세포 DNA를 파괴한다. 'SKL35502'는 암 특이 단백질 NTSR1을 표적하는 기전을 활용한 영상진단제다.

아울러 SK바이오팜은 미국 테라파워, 벨기에 판 테라, 독일 에커트앤지글러 등 다수의 글로벌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업과 악티늄-225(225Ac) 공급 계약도 이미 확보했다.

국내 제약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다국적 제약사 뒤를 이어 국내외 많은 스타트업이 첨단 의약품 분야로 방사성의약품을 꼽으면서 우선적으로 기존 허가 약물의 임상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고 점차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서 신규 리간드에 대한 탐색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설화수, 카카오톡 기프트X로 고객경험 확대

서울 종로 '북촌 설화수의 집'서
韓 전통미·인삼 이야기 경험 제공
전시, 브랜드 철학, 오감 경험 마련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카카오톡 기프트X 시즌5'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톡 기프트X는 상품과 함께 브랜드가 설계한 오프라인 경험을 선물하는 서비스다. 이번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만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특별함을 더했다. 한국 전통미와 설화수만의 인삼 이



'북촌 설화수의 집' 전경.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약 80분간 운영된

다. 북촌 설화수의 집 공간을 둘러보며 전시를 관람하는 등 브랜드 철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인삼차, 입욕제, 다과 등을 통해 설화수의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설화수는 어지혜 작가와 협업해 프로그램 전반에 작품 색채와 감성을 반영했다. 어지혜 작가는 감정과 에너지를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온 아티스트다.

한편, 설화수 카카오톡 기프트X 시즌5 상품은 오는 3월 22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美 월마트에 K-바디케어 착륙

브랜드 린센트·사위메이트 공개

애경산업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최대 유통 매장인 '월마트'에서 퍼스널케어 브랜드 '린센트'와 토털 바디케어 브랜드 '사위메이트'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48개 주에 위치한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 600여 곳과 온라인에 동시 입점했고 향후 입점 점포 수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미국 유통 시장에서 제품력과 기능성을 겸비한 K바디케어 브랜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과 보습을 중요시하는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현지 맞춤형 제품을 선보인다.

린센트에서는 저자극 스크럽 바디워시 3종(플라워마켓, 코지파이어, 벌스데이케이크)을 내놓는다. 프랑스산 고급



바디케어 브랜드 '린센트'와 '사위메이트'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애경산업

향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위메이트에서는 산양유 성분으로 피부 보습력과 진정 효과를 높인 '사위메이트 산양유 바디워시 딸기'로 브랜드 운영 전략을 강화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월마트 입점을 시작으로 미국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바디케어뿐 아니라 헤어케어 등으로 K뷰티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톨라 대통령에 '오휘' 선물

마이스터 포맨 프레쉬 3종 기획세트
해외에 '고급 K-뷰티' 확산 방침

LG생활건강은 디에이징 솔루션 뷰티 브랜드 '오휘'의 화장품이 21년 만에 방한한 루이스이나시우 톨라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국빈 선물로 전달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청와대는 톨라 대통령에게 전대일 열사 평전, 호작도(호랑이·까치를 그린 그림),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남성용 화장품을 선물했다. 이 중 남성용 화장품은 오휘의 '마이스터 포맨 프레쉬 3종 기획 세트'(사진)다.

해당 세트에는 스킨, 로션, 클렌징 폼이 담겼다. 스킨과 로션은 각각 피부 보습 성분인 베타인,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판테놀을 함유한다. 바르는 즉시 시원함을 전달하고 번들거림 없는 사용감이 갖췄다. 중·지성 피부의 남성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80대에 접어든 1945년생 톨라 대통령도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하다.

또 오휘 마이스터 포맨 프레쉬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자연의 생기를 구현한 골드 라벨 발사믹 비니저 성분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해 준다.

톨라 대통령은 평소 K뷰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개 연설에서 톨라 대통령은 "내가 잘 생겨진 이유는 한국산 화장품 덕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LG생활건강은 국민급 선물을 비롯해 '고급 K뷰티'를 확산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국빈 선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해외에서 K뷰티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 화장품이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는 공중 피부과와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가 각각 정상을 위한 선물로 마련됐다. /이청하 기자

에이피알 '에이지알', 글로벌서도 이용 활발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50만 돌파
뷰티 디바이스 판매 확대 영향

에이피알은 올해 1월 기준, 모바일 앱 '에이지알'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가 150만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00만 건을 기록하고 8개월 만에 50만 건이 늘어난 성과다.

해당 앱은 에이피알 대표 제품 뷰티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브랜드 전용 앱이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판매가 확

대되면서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뷰티 디바이스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현재 600만 대를 넘겼다. 지난해 9월 500만 대 달성 후 약 1개 분기 만에 100만 대가 추가 판매되는 등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지표 또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25년 1월 21만 명에서 2026년 1월 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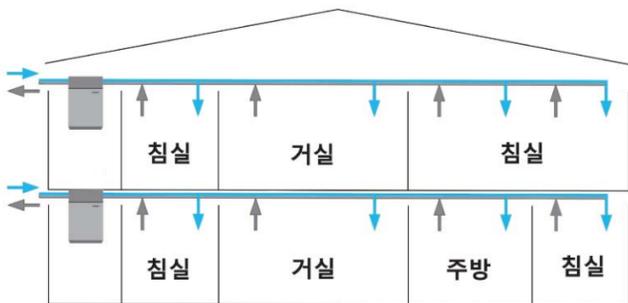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GC녹십자MS, 브라질 '피오르루즈 재단'과 맞손
 해외진단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브라질 보건부 산하 과학기술 및 공중보건 연구기관인 '피오르루즈 재단'과 기술 및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GC녹십자엠에스



공영홈쇼핑,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판로 지원
 공영홈쇼핑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손잡고 스포츠 산업 분야 중소기업·판로 지원 등을 위해 나선다.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오른쪽)과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광동제약, 시민과 함께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임직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한 겨울 시즌 기부 캠페인 '사랑의 붕어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임직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한 겨울 시즌 기부 캠페인 '사랑의 붕어빵'을 진행했다. /광동제약



BNK부산은행,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관계자와 어린이 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스타벅스, 남선 우체국에 커피 전달하며 응원
 스타벅스 코리아가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남선 우체국'을 방문해 커피와 푸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선 우체국은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청사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8일 만에 임시청사를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차, LACMA 파트너십 2037년까지 이어간다

10년간 45개 프로젝트 등 후원 프로그램 정례화 등 생태계 확장

현대자동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LACMA)과의 파트너십을 2037년까지 연장하며 장기 협력 체제를 이어간다.

현대차는 24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LACMA와 협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연장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파트너십을 통해 2015년 레인 룸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개막한 '타버레스 스트라'까지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넓힌 전시와 한국미술사 연구기반의 한국서예·근대미술기획



현대차와 2037년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한 LACMA BCAM 건물 전경.

전 등 총 8회의 전시를 후원해 왔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LACMA의 대표 프로그램 '아트+테크놀로지 랩' 지원도 계속해 왔다.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45개 아티

스트 프로젝트를 포함해 폭넓은 후원을 이어갔다.

아트+테크놀로지 랩은 올해 봄부터 격년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실천하는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선

정·지원하고, 작가의 연구·실험 과정을 관객에게 공개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발표와 함께 현대차와 LACMA는 새로운 전시 시리즈 '현대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현대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 및 환태평양 지역과 연계성을 지닌 세계적 작가의 작업 세계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LACMA에서 작가의 신작을 함께 소개하는 전시 프로그램이다. 전시는 2028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개막 전에는 현대 프로젝트가 열릴 LACMA BCAM 건물 외벽에 작가의 대형 배너 작품을 설치해 관람 경험이 전시장 밖으로 확장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백, 정부 탄소중립포인트 항목 인정

유통 ESG경영의 새 기준 제시

현대백화점이 고객과 함께 진행해 온 자체 친환경 활동 5개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실천 활동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통업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소비자가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때 정부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포함되

는 현대백화점의 실천 활동은 주요 공원 나무 심기 기부(3000포인트), 폐휴대폰 제출(1000포인트), 식품판 다회용기 차질(500포인트), 사내 카페 텀블러 이용(300포인트), 식품판 개인 장비구니 사용(50포인트) 등 총 5가지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전자 영수증 발급(10포인트) 항목은 2022년부터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백화점 고객들은 기존에 제공받던 백화점 자체 보상인 H포인트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23일 열린 '2026년 두산연강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두산연강재단 박용현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장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재단, 올해 장학금 30억 지원

성적·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형태

두산연강재단이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올해 첫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75명에게 1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우수한 학업성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선보인 학생들이다.

재단은 올해 '두산 꿈나무 장학금', '다문화가정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연간 총 30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중앙회 "중소 우수성 알려주세요"

포스터·영상 부문 내달 20일까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17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한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하는 공모전의 분야는 포스터, 영상 2개 부문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세부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 중요성, 가치 ▲중소기업 편견(인식) 개선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 주) 홍보이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좋은 일터로서의 가능성을 작품에 자유롭게 담아 표현하면 된다.

수상작은 타당성, 활용도, 창의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에쓰오일 ◇부사장 승진 △이정익(사힌프로젝트본부장) △정영광(화학생산본부장) △이건명(국내영업본부장)
- ◇상무 승진 △이경문(신사업본부장) △이욱용(사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허성훈(프로젝트기술본부장) △이정일(중부지역본부장) △김승후(수급본부장) △신종철(유통영업본부장) △서경섭(총무본부장) △신봉수(R FCC1공장장)
- ◇상무보 승진 △안정우(경영기획본부장) △이현민(남부지역본부장) △양현준(물류본부장) △김현우(국내판매본부장)

부음

- ▲김민중 씨 별세, 이경석(전 쌍용건설 부사장)·경국·경하(태릉건설 연구소장)씨 모친상, 채민희·김정주·이후연 씨 빙모상 = 22일 오전 8시 25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40분, 장지 대전공원묘원. (02)3010-2000
- ▲이승준 씨 별세, 황금일 씨 부인상, 황상연·승연·란희 씨 모친상, 배수경(이투데이 콘텐츠혁신부문 에디터)·성인순 씨 시모상 = 23일 오전 2시,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전통실,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천안추모공원. (041)550-7474

효성티앤씨, 기부 마라톤 파트너 참여

카카오뱅크와 업무 협약

효성티앤씨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프 레이스 2026'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효성티앤씨는 24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세이프 레이스 2026'의 친환경 요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이프 레이스는 2024년부터 매년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라톤 행사

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은 전 세계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행사는 11월에 개최된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티앤씨는 세이프 레이스 2026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가방 등 친환경 굿즈 패키지를 '리젠' 섬유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 행사에 사용되는 대형 현수막과 배너 등에도 리젠 소재를 적용하고, 행사 종료 후 이를 수거해 업사이클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자원 순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에 정재현 대표 (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정기총회를 열고 정재현 SK텔레콤 대표(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AI·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한 협회 운영 방향과 미래지향적 조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AI·디지털 중심의 정책·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서현 기자 seoh@



COME & 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뤼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뤼머광장과 박물관 지구를 잇는 철조 소제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 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술 걸작을 감상하는 방법



홍경안 역
시시일각

미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석기시대 암각화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아트에 이르기까지 미술은 언제나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모해 왔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Humanism)적 사유와 과학적 발견이 함께 꽃핀 시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라파엘로(Raffaello Sanzio)와 같은 거장들이 즐비했다. 이들은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며 조각과 회화, 건축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방법론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들은 인간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불후의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지는 바로크(Baroque)와 로코코(Rococo) 시대의 미술은 감정과 움직임, 화려함과 섬세함을 특징으로 한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나 루벤스(Peter Paul Rubens), 베르메

르(Johannes Vermeer)와 같이 현실감 있는 색채와 구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예술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극적인 순간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고, 미술이 감동 이상의 심리적 깊이와 영혼을 투영하는 매체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세기는 미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혁명적 여명기였다. 프랑스 혁명(1789-1799)과 산업혁명의 여파로 급변하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미술은 재현 수단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주관과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무엇보다 19세기 미술의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예술의 자율성과 실험정신이다. 살롱과 같은 공식 미술 기관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 화가들의 용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실험과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들이 보여준 관습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미적 가치 탐구는 현대미술의 다원적 성격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물론 19세기 이후에도 혁신적인 예술의 진보는 지속되었다. 20세기에 피카소와 마티스(Henri Matisse), 달리(Salvador

Dali), 뒤샹(Marcel Duchamp) 같은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가들이 등장하면서 미술은 더욱 다채로운 실험과 혁신의 장이 되었다. 입체파(Cubism), 추상 미술(Abstract Art),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 등의 새로운 사조가 속속 등장하며, 미술은 그저 눈에 비치는 형식적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성찰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후 현대미술은 각종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반응하며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변혁의 힘을 지닌 매체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증명했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팝아트(Pop Art) 등은 예술의 범위를 확장했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하며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미술은 감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형상화하는 창조적 행위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을 살펴보면 미술의 변화와 발전을 한눈에 파악하고,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술평론가

대출규제와 생산적 금융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기업 쪽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겉으로만 보면 금융의 무게중심이 '생산'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다. 정책 당국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증가한 숫자만으로 금융의 방향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세부 흐름을 보면 대출 증가분은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민감해진다. 담보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차주에게 자금이 물리는 것은 어

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연체율 관리와 건전성 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책의 의도와 자금의 실제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금융당국은 포용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방 중소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담보와 과거 실적을 요구받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 현재의 안정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금이 필요한 곳과 실제 자금이 향하는 곳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크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기업대출이 늘었다는 단순한 수치 변화는 정책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약한 기업이 자금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기업대출 확대는 결국 안전한 차

주 중심의 자산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총량 관리가 아닌 방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뒤따라지 않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구호에 머물 수 있다. 기술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보 중심 심사 관행을 보완하며,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대출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기업대출 증가가 통계상의 성과로 남지 않으려면, 자금이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1월 9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부부가 함께 나들이를 가면 좋습니다. 60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 하세요. 72년생 자신을 희생하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4년생 추진하던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듯 합니다.



49년생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면 안됩니다. 61년생 현재 일보다는 새로운 일이 좋습니다. 73년생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85년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잡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생 거래가 성사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문서에 인연이 있으니 희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정진하세요. 63년생 옛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너무 쉽게 믿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88년생 이성운, 금전운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5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잘 풀립니다. 67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79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91년생 자신을 희생 해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때문에 신경을 많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69년생 서두르면 후회하니 신중 하세요. 81년생 되로 주면 말로 받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93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 점을 받거나 점대를 하세요.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될 것입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액막이 기도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피흉취길(避凶取吉)이 목표다. 특히나 우리나라 삼천리는 음력 정초가 되면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집안 이런저런 방편을 쓰는데, 민간에서 인기 있는 액막이 방편의 하나로서 음력으로 정월 보름 안에 행하는 흉수막이라 불리는 의식은 새해를 맞는 우리 중생들이 일 년간 다가오는 나쁜 일들을 막아내는 방편으로써 주로 무속인들이 행하곤 하였다. 무속인들에게 가는 것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입춘대길 또는 건양다경과 같은 첩지를 받아와 대청 기둥이나 대문에 붙이고, 입춘 기도 후에 나눠주는 팔알이나 오색실을 받아와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걸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선조들은 역사적으로 전쟁도 많았고 인간사 고(苦)가 본질인지라 정월부터는 물론이고 달마다 이런저런 명칭을 붙여 액막이에 진심이었다.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으로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짇날 기도로,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초파일에 막아내며,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로 막아낸다. 그래도 액막이의 으뜸 시기는 정월이다. 오죽하면 정월 초사흘부터 시합이라도 하듯이 대보름까지 각 가정에서는 위에 말한 흉수막이 의식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적이라도 받아와 베킷속이나 속 옷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다니게도 했다. 이 전통은 과거만 큼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대도시에 속하는 수원의 영동시장 거북산당에서는 정초가 되면 줄을 잇다시피 하며 도당 곳이며 액막이 의식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예전만큼의 문전성시는 아니지만 사실 영동 거북산당 도당국은 200여 년간이나 유서 깊게 전해 내려온 지역의 전통 곳이지 않던가. 지방의 어떤 곳은 정초에는 꼭 당제는 올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 불이 난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6	5	
6			1	3	7 2
	1	3		8	
4	7			9	
	7		3	1	
1		8	5		
8	6	7	4		1
5	6		7		

7	9	2			3
		5	1		
	1	8		2	
	4	1		5	
8	6			7	1
	5		7	4	
2		8	1		
		7	4		
4			6	8	2

8	2	4	6	1	9	7	5	3
1	8	6	9	2	7	4	5	3
9	7	5	4	8	6	1	2	3
9	1	7	8	9	2	7	4	6
4	9	8	7	6	1	2	5	3
8	6	2	8	5	4	9	7	1
7	8	9	2	5	1	6	4	3
2	4	1	7	6	9	8	9	3
6	9	1	9	4	8	2	7	3

2	6	8	9	1	5	4	8	7
9	9	8	2	7	4	8	1	6
4	7	1	8	6	8	9	2	9
6	8	7	4	8	9	2	9	1
1	8	4	5	2	7	9	6	8
9	9	2	6	8	1	7	4	8
7	2	6	8	4	8	1	9	5
8	4	9	1	9	6	8	7	2
8	1	5	7	9	2	6	8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5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통합 국립대 3곳 내달 출범... 교명·직제정비 등 '본격화'

교육부, 국무회의 설치령 개정 강원대·목포대·창원대 내달 개교 교직원 신분·학생 학적 경과조치 캠퍼스별 특성화, 지역산업 연계 "경쟁력 확보·지역소멸 대응"

강원대·국립목포대·국립창원대 등 통합 국립대 3곳이 오는 3월 새롭게 문을 연다.

이는 대학 통합에 따른 명칭·직제 정비와 학생·교직원 경과조치를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통합대학 출범에 맞춰 교명과 행정·학사 조직을 정비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겼다.

먼저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강원대학교'로 통합돼 3월 1일 출범한다. 두 대학은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도 1국립대'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벌대학)에 선정됐다. 이후 2024년 2월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2025년 5월 통합을 승인했다.

통합 강원대는 1총장 체제 아래 4캠퍼스총장(법정부총장), 1부총장, 10처 1국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한다. 학사조직은 20학부 154학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 13개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춘천 캠퍼스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중심 교육·연구 거점, 강릉은 신소재·해양바이오·관광·동해계 스포츠 인재 양성 거점, 삼척은 액화수소·에이징테크·재난방재, 원주는 디지털헬스케

어·이모빌리티·스마트 통합돌봄 분야를 특성화한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학교'로 통합돼 같은 날 출범한다. 국립목포대는 신해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도약 전략의 하나로 통합을 추진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통합 신청 후 2025년 5월 승인됐다.

통합 국립목포대는 1총장 3부총장 체제에 6처 1국 1분부를 두고, 10단과대학 22학부 22학과, 4개 대학원을 운영한다.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립 캠퍼스는 4년제·대학원 중심 교육·연구 거점, 담양 캠퍼스는 글로벌 산업기능인력 양성 거점으로 운영되며, 목포·남악·영암·나주·장흥 캠퍼스는 남도문화예술, 스타트업, 해양·에너지·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한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세 대학은 'K-방산·원전·스마트제조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통합 신청 후 2025년 5월 통합이 승인됐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1총장 4부총장 체제에 9처 1국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9단과대학 10학부 46학과 11전공, 8개 대학원을 운영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진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4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중학사 체제를 도입한다. 창원 캠퍼스는 AI 융합 기반 방산·원전·자율 분야 고급 인재 양성, 거창은 방산·스마트제조·항노화 휴먼케어 실무 인재, 남해는 항공·해양 방산과 에너지안전, 관광융합 분야를 특성화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6. 2. 23. (월) 15:00 | 인하대학교 Multiplex room (왼쪽부터) 대한항공 유종석 부사장, 인하대 조명우 총장, 한국피지컬AI협회 유태준 회장이 인하대 Physical AI 기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학교

피지컬AI 산학협력

대한항공과 인재양성 추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㉔)대한항공, (사)한국피지컬AI협회와 인천 Physical AI 기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하대와 대한항공, 한국피지컬AI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Physical AI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실증 프로젝트 기획·운영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력 ▲실습 중심 교육 모델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

인하대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이 피지컬 AI 실증,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하고, 이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92곳 지원 575억 투입·대입과정성 강화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응 2028 대입개편 맞춰 전형 연계 확대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89% 유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개편을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 92개 대학에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우수 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025학년도 89.0%, 2026학년도 88.8%, 2027학년도 89.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6~2028학년도에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하며, 일부 대학은 4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사업의 전체 규모는 사업관리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585억3300

만원이다. 이 가운데 기본사업에는 92개 대학에 약 537억원이 지원되며, 대학당 평균 지원액은 약 5억8000만원 수준이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 모델 발굴을 위한 자율공모사업에는 16개 대학이 선정돼 약 38억원이 투입되며, 대학당 평균 2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비용 등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 대학들이 수행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초등생 전원 '안심벨' 보급

신청 학교 재학생 전원 지급 '안심경광등' 5000개 보급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학교에 전

량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신청 학교로 배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휴대용 안심벨인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경광등'은 상반기 5000개를 각각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0 | 해질 / 18:21

2월 25일(수) 음력: 1월 9일

수도권 날씨 -1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15, 동두천 -4/15, 가평 -4/14, 파주 -4/14, 서울 -1/15, 양평 -4/16, 수원 -1/15, 용인 -1/15, 평택 -4/15

백령도 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이란 공습 임박? "26일 제네바 회담 분수령"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로 배터리·화학제품 관세 추가 검토" /사진 뉴스시스

▲러우전쟁 4년...사상자 180만명·영토 19.4% 국제 지원 13% ↓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1년물 3%... 9개월째 동결

▲中왕이, 미국 겨냥 "인권 빌미 타국 내정 간섭 말라"
▲중일 냉각 속 중, '시진핑 축전' 또 안보내... 다카이치 재선에도 무반응



AI가 식단 짜고
로봇이 튀긴다
식품산업 구조재편
L1



Life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겨냥
개발·육성 속도
L2



역동적 안정성 강조... 내수 한계 깨고 글로벌 빅테크 노린다

CEO 와칭

정재현

SK텔레콤 CEO

SK텔레콤이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업 특성상 '내수 위주'의 사업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과감히 깨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야심찬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진두지휘하는 주인공이 SK텔레콤의 정재현 사장이다.

국내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
통신 중심 사업구조·조직관성 변화
매출 규모보다 효율적 수익에 초점
품질·보안 강화... 중장기 경쟁력▲

판사 출신에서 SK텔레콤 법무그룹장, 대외협력 사장을 거쳐 지난해 SK텔레콤의 CEO로 임명된 그는 취임 직후부터 울사답게 최고경영자(CEO)의 'C(Cheif)'를 'Change'로 재정의하며 스스로를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로 규정했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통신 중심 사업 구조와 조직 내 관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선언이라는 평가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활동적 타성'을 끊어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사장의 경영 기조는 외형 확대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임 이후 SK텔레콤은 기존 핵심 지표였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대신 ROIC(투자자본이익률)를 주요 경영 관리 지표로 채택했다. 매출 규모나 단기 실적보다, 투입한 자본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 수익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통신 서비스의 본질인 품질과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자본효율성을 높여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조직문화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 사장은 취임 후 첫 탄원홀 미팅에서 "실패의



정재현 SKT CEO.

/SKT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25~ SK텔레콤 CEO
- 2024~ SK SUPEX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 2024~2025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
- 2022~2023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 2020~2021 SK텔레콤 법무그룹장
- 201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2017~2018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 2013~2015 사법연수원 교수
- 2011~20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2000~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책임은 경영진이 지겠다"고 밝히며 구성원들의 도전과 실험을 독려했다. 회사가 리스크를 감내해 줄 때 구성원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메시지다.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역동적 안정성'은 정 사장이 강조하는 조직 운영의 핵심 키워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AI 분야에서는 인프라 중심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AI 피라미드' 전략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GPU 클러스터, 플랫폼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마존과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AI와는 서남권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국내 최초 고성능 GPU 클러스터 '해인(Haein)' 구축은 소버린 AI 역량 강화를 겨냥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국가대표 AI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기술 투자와 함께 정 사장이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축은 AI 거버넌스다. 그는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불공정, 책임 소재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를 위해 통신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T.H.E. AI(Telco·Humanity·Ethics)' 원칙을 제시하며, 신뢰를 전제로 한 AI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 사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500만 명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

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고, 무너진 보안 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불가피해지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4% 급감했다. 통신 1위 사업자에 대한 '안전 신화'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도 타격 역시 작지 않았다는 평가다.

AI 피라미드 전략으로 인프라 확장 신뢰 앞세운 AI 생태계 구축 강조

해킹사고, 법률 리스크 '부담 요인' 직원들과 소통하며 내부결속 다져

법률 리스크도 부담 요인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해킹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이동통신 산업 환경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속도 경쟁까지 고려하면, 정 사장이 맞닥뜨린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 사장은 내부 결속을 또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삼고 있다. 신입 사원부터 신입 팀장까지 직접 만나 소통하며 '드림팀' 구축을 강조하는 행보는, AX(AI 전환)라는 대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 과정으로 풀이된다. 기술 전환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2026년, 정재현 체제는 이제 선언과 설계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통신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사업자로의 전환이 재무 성과와 시장 지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SK텔레콤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데뷔 3경기 연속골...오현규, 흥명보호 최전방 1순위 부상하나
▲이정후, MLB 시범경기 2경기 연속 안타...'리드오프' 김혜성도 안타 생산 /사진 뉴스스

▲스노보드 최가은, 美 NBC 선정 '밀라노 동계올림픽 신예 스타'
▲'中 귀화' 린샤오젠, '노 메달'로 두번째 올림픽 마무리

▲해외 콩쿠르 결선 첫 국내 개최...'이자이' 7월 이천서 결선
▲콘진원, AI 콘텐츠 제작 지원...역대 최대 198억 원 투입